



부처님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돌아왔다. 청명한 신록의 계절로 접어들어 5월은 모든 생명체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부처님은 이런 생명력 넘치는 날 탄생했다. 불교국가들은 부처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부처님의 탄생일은 네팔,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베사데이(Vesak Day)로 불리며 1년 중 가장 큰 축제일로 여겨진다.

스리랑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Vesak(또는 Wesak)' 이라 부르고, 태국은 'Visakah', 인도네시아는 'Waisak', 캄보디아는 'Visak' 인데 그 의미는 모두 베사카(Vesakha)에서 유래한다.

베사카는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의 'Vaisākha'에서 유래 됐다. 베사카의 정확한 날짜는 각국의 서로 다른 전통에서 사용되는 음악

에 따라 변천했다.

부처님의 탄생일은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기념일이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중국식 달력을 사용해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남아시아·동남아시아의 불교국가에서는 음력으로 만월인 4월 15일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서양력을 사용해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정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1998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대회에서의 안건이 받아들여져, 양력 5월 중 보름달이 뜬 날을 석가탄신일로 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UN 베사데이는 해마다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축하행사를 하고, 동시에 불자들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는 아시아 유엔센터인 방콕에서 전 세계 불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와 축하문화행사를 진행한다.

- ① 흰 옷을 입은 스리랑카 불자들이 불전 앞에 꽃 공양을 하고 합장하고 있다.
- ② 스리랑카에서는 '베사 쿠두(Vesak koodu)'라 불리는 불법승을 상징하는 형형색색의 랜턴을 가로수나 집 앞에 걸어놓는다.
- ③ 홍콩의 모녀가 베사데이에 아기부처님에게 물을 뿌려주고 있다.
- ④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광장에서 베사데이를 기념해 동양인 스님들이 아기부처님에게 물을 뿌려주고 있다.
- ⑤ 인도네시아 스님들이 꽃 장식을 한 양초를 들고 봉축행렬에 참여하고 있다.
- ⑥ UN 베사데이를 맞아 각국의 어린이불자들이 유엔본부에 모여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 ⑦ 말레이시아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새를 풀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한 남자가 새장을 열어 새들을 풀어주고 있다.
- ⑧ 싱가포르에 있는 한 사찰의 청년 불자들이 연등을 만들고 있다.



병원, 극빈자, 탁아소들을 방문해 대중공양을 베푼다.

스리랑카

국민의 80% 이상이 불교인 스리랑카는 베사(Wesak)이라 해 음력 4월 15일 당일과 그 다음날을 공휴일로 제정해 부처님의 탄생일·성도일·열반일을 모두 함께 기려 성대한 축제를 펼친다. 스리랑카의 베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문화축제와 동시에 매우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진행된다. 베사 주일 동안 술과 고기를 파는 것이 금지돼 있다. 특히 이 기간 중 2일간은 모든 술집과 도살장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었다.

모든 신도들은 흰 옷으로 갈아입고 종일 절에서 보낸다. 흰옷은 청정과 순결을 의미한다. 신도들은 기쁨 등·꽃·향·초 등을 공양으로 올리며 스님들에게 필요한 가사, 비누 등 생활용품도 공양으로 올린다. 스님들은 종일 절에서 법문을 하거나 토론회를 갖고, 신도들은 명상과 팔리어 경전을 암송한다.

또 축제 때 불치(부처님 치아)를 모신 사리함이 공개되며, 108마리의 코끼리 행렬이 장엄하게 펼쳐진다. 신도들은 집 때문에 커다란 아저형의 장식을 꾸미고 밤에는 네온사인 장식을 해 화려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미얀마

인구의 85%가 불교신자인 미얀마의 부처님오신날은 '까송쉬우 내른'이라고 하며 그 의미는 '깨끗한 물을 보리수에 끼얹었다'는 뜻이다. 신도들이 복을 짓기 위해 은으로 된 그릇에 물을 길어다 관속시키고 촛불을 탑 주변에 켜놓고 소원을 비는 행사를 연다.

관속식을 끝낸 미얀마인들은 대문을 모두 열고 길가는 사람을 위해 차, 과일, 담배 등을 무료로 나눠준다.

태국

인구의 97%가 불자인 불교국가 태국은 음력 4월 15일 베사카(Vesak)를 국경일로 정해 35일간 국기와 불교기가 게양되며 각 사원의 법회 실황을 TV와 라디오를 통해 보도한다. 베사카에 참석한 불자들은 등이나 촛불을 켜고 금종이를 사서 불상에 붙이며 각



자의 소망을 기원한다. 특히 태국 국민들이 부처님오신날에 가장 정성을 드리는 일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음식, 꽃에서 치약, 휴지 등에 이르기까지 일용품도 공양하기도 한다.

일본

전체 국민의 약80%가 불자인 일본은 동양에서 유일하게 양력 4월 8일 '하나마쓰리(花祭·꽃의 제전)'이라 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한다. 각 사찰에서는 대웅전 앞에 봄에 피는 갖가지 꽃으로 당우를 만들어 탄생불상을 안치하고 단차(미자, 설방)를 첨가하지 않아도 단맛이 나는 차로 천불계를 독송하면서 아기부처님을 묵욕시킨다.

대만

국민의 약70%가 불자인데 비해 한국과 같은 연등행사는 없다. 독경 위주로 조용히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한다. 종파에 따라 양력 4월 8일과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봉축하고 있다. 백화유로 불을 밝히고 꽃, 과일, 다과공양과 방생법회 및 양로원,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1500년 역사를 지닌 스와얌무 사원에서 아침부터 대법회가 시작된다. 음악과 춤 속에 탑들이 행사와 진행되고 세존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가 전시된다. 오후에는 왕과 왕족 및 국내외의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를 진전하는 봉축행사가 있고 저녁에는 봉축점등식이 열린다.

홍콩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오신날인 홍콩에서는 사찰 부속학교가 많아 강연회, 세미나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사찰에서는 신도 참배와 철야정진 등의 참회식뿐 별다른 행사는 없으며 각 사찰별로 간소하게 지낸다. 그중 많은 신도들이 세계 최대의 청동좌불이 있는 란타우 섬의 보림사를 방문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국가로 알려져 있는 말레이시아는 불자수가 전체 국민의 20%정도지만 국가 공휴일로 정해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계 화교들이 불자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민속이 스며들어 있다.

인구 45만 명인 말라카에서만 1만 명이 넘는 불자들이 갖가지 연꽃등·탑 등과 장식물을 준비해 제등행렬을 펼치는데, 용(龍)을 특별하게 여기는 중국인들답게 거대한 용 장엄물이 등장한다.

제등행렬에는 시내 중고등학교의 밴드가 동참해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화교 학교뿐 아니라 가톨릭계 학교에서도 참여해 종교 화합에 앞장서기도 한다.

사찰에서는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새를 풀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 방식이 오히려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생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너는 기자 bohying@buddhapia.com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한국 근본 불교 조계종

명예종정 만운 종정 일송 상임부종정 법정 부종정 혜성, 현공

■장로회의

의장 지선	부의장 덕암
의원 원진	우천
성월	현공
만운	의륜
법정	월주
태종	해원
성원	정훈
혜성	일송
해주	혜공
수혜	혜원

■중앙종무위원

총무위원장의륜	
상임부위원장 청광	총무부위원장 법운
교육위원장 수혜	사정위원장 해법
문화위원장 상연	수선위원장 일진
총무부장 진법	교무부장 태산
규정부장 무진	감사부장 법경
의전부장 석암	사회부장 법정
포교부장 수덕	사서부장 동봉
	포교위원장 청광
	감사위원장 해석
	비구니위원장 해인
	재무부장 무일
	문화부장 일월
	사업부장 대성

■중앙종회의원

의장 해원	부의장 법정
의원 의륜	청광, 수혜, 해법
해석, 상현, 일진, 해인	
진법, 태산, 무일, 무진	
법경, 일월, 석암, 법정	
대성, 동월, 도암, 법성	
동천, 해곡, 학용, 해월	
일도, 동법, 서우, 법완	
법륜, 석일, 왕인, 상법	
법원, 동봉, 수덕	

◆ 총무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390 불탑사 전화 033) 671-7751 / 011-352-7751